

# “싸움은 그만하고 일하라” vs “조국 임명 불만 폭발 직전”

## ■여야 추석 밥상 민심 엇갈린 평가

여야 정치권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전한 추석민심의 화두는 단연 ‘조국’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추석 연휴 기간 각자의 지역에 머무르며 민심을 청취한 결과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대부분 화제의 중심을 차지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이 같은 민심을 해석·평가하는 방향이 서로 달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들이 ‘조국 정국’에 대해 극도의 피로감을 표했다며 일하는 국회를 통해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데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 수준이었다고 전하면서 정권 비판에 열을 올렸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걱정도 여전히 팽배했다. 다만 조 장관이 워낙 화제가 되다보니 이에 묻히는 모습이었다고 여야 의원들은 전했다.

◇興 “조국 임명 격려·비판 ‘반반’…싸움박질 그만하고 일하라”=여야 의원들은 지역을 불문하고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싸늘한 질타와 따뜻한 격려가 ‘반반’을 차지한 가운데 이미 임명이 이뤄진 만큼 이를 지켜보자는 관망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국민 대다수가 조국 이슈에 대한 피로감을 표하면서 “그만 싸우고 일하라”는 민심을 받아들여 정쟁을 멈추고 정국회와 민생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서울 구로갑)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심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회가 민생을 돌보길 희망했다”며 “검찰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제 할 일을 해 ‘조국 블랙홀’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통화에서 “보통 명절 때는 경기가 어렵거나 먹고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는 조 장관 이야기에 가려 그런 이야기가 ‘쑥’ 들어갔다”며 “조 장관 관련한 질타와 격려가 반반인 가운데 국회가 ‘조국 싸움박질’을 그만두고 일 좀 하라는 질타가 쏟아졌다”고 강조했다.

송기현 의원(강원 원주을) 역시 “조국 이야기만 하시더라. 민생 이야기는 덜 나왔더라”면서, “그동안 지나치게 많이 했다”며 ‘조국 정국’에 대한 피로감 토로가 대부분이었고, 조 장관을 지켜보겠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 “조장관 임명 격려·질타 반반”

### “먹고 살기 힘들다” 걱정 팽배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수도권 민심은 ‘임명이 불가피했다’는 의견과, ‘그래도 임명했어야 하나’ 하는 의견으로 양분돼있다”며 “다만, 한일 경제전이 한창일 때만 해도 국민들의 시선이 다소 따뜻했지만, 이번 추석에는 다소 냉랭해진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반이 확실히 갈렸다”며 “왜 문제 있는 사람을 임명하느냐는 쓴소리가 있었지만, ‘이왕 임명된 것이니 어떻게 하든지 지켜보겠다’는 관망파가 늘어나는 추세였다”고 전했다.

◇野 “조국 임명 원성이 민심폭발 지경”…‘한국당 제 역할 못한다’ 비판도=한국당은 전국 모든 지역의 추석 민심이 ‘조국 임명’에 부정적이었다며 자진사퇴나 임명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당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의원은 “조국 임명”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의 극치라는 게 현재 민심이었다”며 “이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이 추석 연휴 지역주민들의 주된 이야기였다”고 강조했다.

“조국 임명”에 반발, 삭발 시위를 벌인 박인숙(서울 송파갑) 의원은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겠다는 생각에 불이 붙은 듯한 느낌이었다”며 “지금 이런 분위기를 잘 유지해서 내년 총선까지 잘 가져가야겠다는 각오들을 다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은재(서울 강남병) 의원은 “어려운 경제 이야기는 쑥 들어갔다. 세금 문제, 안보 문제는 거론도 안 되고 조국 이야기가 블랙홀처럼 다 삼켜버렸다”며 “채갑상 강남 주민들의 80%는 조국 임명에 반대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김진태(강원 춘천) 의원은 “추석 연휴 때 지역구에서 ‘길거리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84%가 조국 임명에 반대하더라”며 “해도 너무한다는 민심이 폭발 지경”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은 이른바 ‘조국 정국’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많았다고 했다. ‘조국 낙마’를 이끌지 못한 것은 한국당 책임이라는 쓴소리가 많았다는 전언이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3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 추석 연휴 구상 마친 문 대통령 ‘조국 정국’ 돌파 묘수 찾을까

### 권력기관 개혁 동력 찾기

### 유엔 연설·한미 정상회담 준비 매진

추석연휴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있어 중대한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안으로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 정국 돌파가 관건이다. 여기에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은 향후 비핵화 정세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정국 돌파=추석 연휴 기간 친지들이 고향에 모여 주고받은 이야기 속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이슈는 조 장관의 임명 문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조 장관 임명에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야권의 반발은 강력하다. 보수 야권이 연대, 청와대·여당과 각을 세우면서 정국 파행이 빚어질 경우 사법개혁은 물론 민생 분야 입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기에 검찰이 전날 조 장관의 5촌 조카를 체포하는 등 수사의 타점이 점점 조 장관으로 향하고 있어 사법개혁 동력은 위축되는 흐름이다. 여권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면서 사법개혁의 동력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비핵화 계기잡나=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가 중대한 국면을 맞으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틀니바뀌가다시 움직이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연휴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이번 주 외부 일정 중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 노딜’ 이후, 지난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극적인 변화를 맞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그 이후 석 달 가까이 북·미 간에는 실무협상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양측의 실무진이 하루 빨리 실무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로드맵과 단계별 이행계획을 그리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중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18일 ‘검찰 개혁’ 당정협의…개혁 제도적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조성식 정책위의장은 15일 권력기관 개혁 문제와 관련, “급주 당정 협의를 개최해 검찰 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조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로,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관련 당정협의는 오는 18일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 등과 처리 전략을 논의하게 될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조국 장관 외에 당 대표 및 원내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정책위의장은 사법개혁 입법 과제와 관련, “공수처 설치와 감·검·수사권 조정은 물론 국정원법,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국정원법의 정국회 내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겠다. 과거사정리법 처리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다시 도는 비핵화 시계…문 대통령 북미대화 ‘촉진자’ 역할 재개

### 북미 경제 풀릴 조짐에 방미 결정

### 정상회담 동맹 균열 우려 불식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미국 방문을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교착 상태에 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조심스럽게 속도를 띄우는 국면에서 ‘촉진자’ 역할에 다시금 힘을 내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 후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던 비핵화 정국에서 북한이 대화 의지를 밝히는 등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면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문제의 직접적 당

사자이자 북미대화의 산파역으로서 다시금 역할을 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유엔총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청와대가 그만큼 북·미 비핵화 대화가 중대한 국면을 맞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온기가 돌 만한 이벤트들이 이어지면서 ‘촉진자’ 문 대통령이 운신할 폭도 다시금 넓어졌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대화 재개의 의지를 밝혀온 만큼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양

측의 실무진이 하루빨리 실무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아야 한다는 점을 설득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서는 한일 갈등 국면에서 불거진 한미관계 균열 우려가 얼마나 불식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미국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전례없는 실망과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해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 측의 우려에도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동중 665-29)

한일솔라에너지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M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